

전북 소비자심리지수 112.3... ‘낙관 기조’

세 달 만에 반등, 경기전망·취업기회 개선... 지출 확대 움직임도 뚜렷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11월 들어 뚜렷이 개선되며 회복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전월 108.6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장기평균(100)을 넉넉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전반적 경제 분위기가 확실히 낙관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지수 역시 112.4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북의 상승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지역 경기 회복 기대가 특히 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6에서 95로 소폭 하락해 여전히 체감 여건의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존재하지만, 생

활형편전망은 99에서 100으로 올라 향후 6개월간 개선을 예상하는 응답이 늘었다.

가계수입 전망 역시 101로 상승하며 긍정 분위기를 강화했고, 특히 소비지출전망은 112로 4포인트나 뛰어오르며 지출 의향이 뚜렷하게 확대됐다.

항목별로 보면 내구재, 의류비, 교통·통신비, 여행비, 의료·보건비, 문화·오락비 등 대부분이 상승했으며 주거비만 보합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소비심리를 자극해 지출 확대 기대를 키우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분명하게 개선됐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01로 6포인트 상승해 기준치(100)를 넘어섰으며, 향후경기전망은 110으로

9포인트나 급등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흐름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취업기회전망 역시 100으로 회복되며 고용시장 개선 기대가 확산됐고, 금리전망은 92로 약간 하락해 향후 금리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계의 저축 여력은 다소 약화됐다. 현재가계저축자수는 93으로 3포인트 하락했고, 저축전망 역시 95로 떨어졌다.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비 증가 전망이 맞물리며 가계가 저축보다 지출·투자를 늘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지수는 100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부채전망은 102로 소폭 상승해 향후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다소 증가했다.

물가 전망은 안정 흐름을 보였다. 물가수준전망은 141에서 140으로 하락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은 123으로 유지되며 여전히 상승 기대가 우세했고, 임금수준전망은 123으로 소폭 상승해 임금 개선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으며, 3757구가 응답했다. 소비자동향조사는 가계 재정, 경제 전반, 고용, 물가, 주택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와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정책 당국과 시장이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능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가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지역 경기 반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중산신협이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우리동네 어부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6개월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동네 어부바’ 교육 성료

중산신협, 어르신 디지털 프로그램 6개월 과정

전주중산신협이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우리동네 어부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6개월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주중산신협은 25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 까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우리동네 어부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직접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중산신협은 올해 핵심 과

제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선정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했다.

교육은 총 6개 기수로 나눠 기수별 10회씩 총 60회에 걸쳐 진행됐다.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스마트폰 기본 조작법을 비롯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카카오톡시 호출 실습, 키오스크 조작법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검색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상공인,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 전북 배제 강력 규탄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전북 도민과 지역 상공인 단체들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전북배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상공회의소의초월회를 비롯한 전 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이 공모 핵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된 데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고 정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북은 지난 10여년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등 견고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정부가 제시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우선검토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임에도 탈락했다”며 “지역의 오랜 노력과 준비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점은 명백한 부당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대형 국책사업에서 전북이 배제된 사례들을 거론하며 “지난 8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탈락,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등 주요 사업에서 잇따른 배제가 지역사회에 큰 좌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만 유독 패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 건설업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공정·투명 조성 요구

감사위원회와 제도 개선 논의

전북지역 건설산업의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5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비합리적 제도와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 자리에서 협회는 지역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애로를 세부적으로 짚어냈다. 특히 원가심사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은 대표적인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협회는 현행 제도가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도서가 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사 과정에서 잦은 변경이 발생하고, 의사결정 또한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공기 지연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부담이 늘고 있음이 문제로 제기됐다.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며 보상 체계 개선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지역업체에 특정 하도급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 역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남원 여성기업 ‘오가네참부각’ 현장 방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24일 남원에 위치한 우수 여성기업 ‘오가네참부각’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전북지방조달청장도 함께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오가네참부각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참쌀 등 신선한 원재료를 활용해 부각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여성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 인정받아 대형 유통채널인 코스트코에 입점

했으며, 현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중기부 경영혁신사업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 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전북지방조달청은 오가네참부각이 취득 가능한 각종 인증서를 확인하며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경쟁력 있는 조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국·독일·폴란드 3국 기술 협력 강화

탄소산업진흥원, ‘탄소복합재 테크브리지 국제포럼’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24일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탄소복합재 테크브리지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독일, 폴란드 3국의 탄소복합재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40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산업전환 공동혁신센터’로 선정된 후 처음 개최한 국제 세미나로, 전통 제조업 인력들이 저탄소·친환경 첨단 소재 산업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독일 복합재연합(CU/MAI Carbon), 쾰니츠공대 MERGE 연구소 Carbon Lab, 프리운호퍼 IAP,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PKTK), 제슈프시·우가치에비치 세라믹 연구소, 바르샤바 공대 등 유럽 주요 기관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 협력



수요를 공유했다.

국내에서는 HS효성첨단소재, 한화첨단소재, 디올 테크카본 등 탄소섬유 및 복합재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관계자와 대학, 연구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연구진 등이 참여해 실증 기술과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탄소복합재의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수요 산업 확대 방향, 항공·모빌리티·에너지·건설·방산 등 응용 분야의 실증 및 상용화 사례, 유럽권 표준·인증·규제 대응 및 공동 R&D와 실증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